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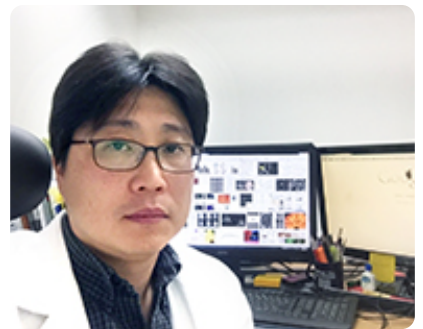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01 의과학연구소 제강훈 박사,
The Winner of the Best Poster Award (WMIC 2014) 선정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의 제강훈 박사는 지난 9월 서울 COEX에서 개최된 '2014 세계분자영상학회(WMIC)'에서 포스터 부분 최고 수상자(Best Award Winner)로 선정됐다.

'Ex Vivo Green-channel Autofluorescence Imaging Can Delineate Cerebral Infarcts (자가 형광 영상을 이용한 대뇌경색 탐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강훈 박사는 뇌경색 손상부위에서만 발생하는 자가 형광을 최적의 영상기법으로 탐지하고, 탐지된 자가 형광의 신호강도에 따라 조직 손상도 다르다는 것을 세포 수준에서 처음으로 밝혀 화제가 되었다. 또 이번 수상은 분자영상 관련 신경학 연구 중 최신 분야로 평가되는 전임상 세포 및 조직수준 연구(Preclinical Cell & Tissue Level Studies, Neurology) 부분에서 수상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김동억 교수 연구팀이 뇌경색에서 자가 형광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추가적인 연구로 밝혀 임상으로 전환한다면 뇌졸중 후 경색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02 동국대학교병원 단독으로 사할린에서 의료설명회 개최

동국대학교병원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연방 사할린을 방문하여 단독으로 의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동국대학교병원이 지금까지 참가한 해외설명회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원 최초로 자체 기획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 설명회는 현지인들의 관심 질환인 척추 질환과 한방 치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마쳤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이번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몽골 등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국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서 본원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더 많은 외국환우에게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다녀온 사할린은 일본, 중국, 한국에 맞닿아 있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51만여 명의 비교적 적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어 극동지역 최고의 부유층이 사는 곳이다.



03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효행근본도량 화성 용주사로 의료봉사 활동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15일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를 찾아 정진 중인 스님들과 몸이 불편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11월 의료봉사는 '효'를 되새기고 의미를 더하기 위해 효의 근본도량인 용주사에서 진행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용주사는 효행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로 회향을 실천하는 사찰로 이달 봉사에 가장 알맞은 도량이다.

지도법사 증휘 스님, 광월회 간호부장,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등 연우회 회원 21명은 이른 아침부터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용주사를 찾아 약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했다.

연우회원들은 "용주사에서 연로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를 실천한 봉사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 사찰의 정겨움이 깃든 늦가을의 풍경과 나눔의 행복을 병원 환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 리 미

폐경의 날 행사

일시 : 11월 19일(수) 10시 30분 | 장소 : 5층 대강당 | 강사 : 산부인과 윤상호 교수

일산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11월 19일(수) 10시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 강사 : 한방내과 최동준 | 주제 : 중풍

